“초여름, 무등산 자락으로 밤 마실 가요”

무등울림 축제 ‘무등 밤 마실’ 6월 3~5일 전통문화관 일대
풍류달빛 공연, 환경영화, 무형문화재와 함께 단오놀이 등

풍류달빛공연, 환경영화, 무등산 사진전, 단오놀이 등….

초여름에 접어들면서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오후 해질 무렵이면 선선한 바람이 어느 정도 열기를 식혀준다. 이 시간 무렵이면 무등산 자락으로 밤 마실을 나가기도 좋을 만큼 선선하다.

초여름 밤 시민과 함께 하는 무등울림 축제가 펼쳐져 눈길을 끈다.

오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전통문화관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무등 밤 마실’. 매년 10월에 열렸지만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6월로 옮겨 주간부터 야간까지 즐길 수 있도록 구성을 했으며 무등산권 5개 미술관, 3개 유관기관이 협업으로 참여한다.

축제는 3일 풍류달빛공연(오후 5시), 4일 애니메이션 영화, 5일 무형문화재가 함께하는 단오놀이 무대로 펼쳐진다.

먼저 풍류달빛공연은 소리꾼 오단해와 청학동 국악자매 김다현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로 채워진다. 환경 인식 개선 일환으로 기획된 환경영화는 애니메이션 ‘슈퍼문’을 즐기는 시간이다. 무등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주관으로 너달마당의 대형 LED스크린을 통해 송출된다.

5일(오후 5시)에는 우리 고유 3대 명절인 단오를 주제로 ‘단오놀이’가 관람객을 기다린다. 가야금병창 공연과 아울러 음식체험이 마련돼 있다.

구체적으로 최영자(광주시 무형문화재 남도의 례음식장)의 수리취 절편과 오미자화채, 이애섭(〃)의 수리취떡과 매작등 선조들이 단오 때 즐긴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또한 문명자(광주시 무형문화재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와 제자들이 연주한 녹음방초, 이영애(〃)와 제자들의 도라지타령·밀양아리랑 등이 울려퍼진다.

축제 기간 전통문화관 주변 미술관을 비롯해 유관기관의 협업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국윤미술관은 폴바추카 외 4인 작가 작품을 홍림교 위에서 전시하고 우제길미술관에서는 우제길 화백의 화려한 색으로 채운 추상미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청년작가 김단비 작품을 조명한 ‘산·들·바람 : 잊혀진 꿈’은 드영미술관에서, 개구리 접기 등 환경 미술을 모티브로 한 체험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펼쳐진다. 의재미술관은 소장품전 ‘꽃과 새가 어울린 자리’ 전시와 부채에 꽃 등을 그려 소장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한국제다(차생원)는 전통차를 시연하는 한편 차와 연관된 전각전을 선보인다.

지난해 전통문화관 일대에서 펼쳐졌던 무등울림 축제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이번 무등울림축제는 무엇보다 이색적인 체험을 다채롭게 준비했다. 한복입기와 민속놀이 외에 무등산 사진전과 빛의 호랑이 전시를 즐길 수 있다.

4일 오후 1시에는 성촌마을, 숙실마을, 동촌마을,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광주문화재단이 참여하는 윷놀이 대회가 열린다. 이밖에 손거울 등에 전통문양의 수묵화 그리기 체험(솟을대문·3~4일), 사군자 그리기와 가훈·좌우명 쓰기(4일),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접선장 김대석과 함께 단오부채 만들기(5일)가 진행된다.

특히 4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는 토요상설공연 조아람의 동초제 판소리와 윤현명의 피리산조, 5일 12시 너덜마당에서는 청소년들의 무용 축제인 ‘제17회 빛고을 청소년 춤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축제기간 홍림교부터 의재미술관까지 ‘초여름 무등울림을 걷다’ 스탬프 투어에 참석한 이들에게는 평촌마을 특산품이 제공된다. 이번 축제는 전통문화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전통문화관 홈페이지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무등울림

우리 곡조와 시…그리고 꽃

광주 출신 심진숙 시인 ‘지네발난처럼’ 펴내

“시가 되지 못한 문장의 이야기 근처를 자꾸 배회했다. 곡조가 되지 못한 문장의 이야기 근처를 자꾸 배회했다. 곡조가 되지 못한 시의 노래가 함께 떠돌아다녔다. 떠도는 문장의 파편들을 엮고 보니 사금파리가 가득하다. 기꺼이 상처받기로 한다.”

‘시인의 말’에서 시인은 문화와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채집’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아니면 태생적으로 우리 곡조와 전통 시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광주 출신 심진숙 시인이 두 번째 시집 ‘지네발난처럼’(문학들)을 펴냈다.

“담양문화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는 말에서 시인이 “곡조가 되지 못한 문장”과 “곡조가 되지 못한 시”의 언저리를 배회했다는 말이 이해가 된다.

시집에는 우리의 곡조와 시, 꽃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 적지 않다. 시들은 대체로 전통이라는 카테고리에 수렴되는데 고아하며 깊은 울림이 특징이다.

“바람이 불면 몽유하는 꽃잎들, 지면에 머리를 곤두박고 낭자해지던 기억이라면, 화려한 절망 속에서 사랑을 꿈꾸었던, 아니 꿈을 사랑했던 꽃과 바람의 이야기, 한 사연이 다른 사연에게로 건너가던 동안의 문장들은 다 어디로 흩어져버린 걸까,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백일홍’ 중에서)

시 ‘백일홍’에는 꽃과 관련된 전설과 설화가 투영돼 있다. 화자는 사연과 사연 속에서 문장이 피어나지만 흩어져 버린 상황을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단정한다. 그저 ‘사이’라고 명명되는 ‘동안’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다. 그럼에도 설 달 열흘 피가 마르도록 피어난 꽃잎이 지닌 인연의 무게와 아름다운 서사를 그려내는 솜씨가 만만치 않다.

한편 심진숙 시인은 전남대 불문과를 졸업했으며 대학원에서 문화재학을 전공했다. 2007년 ‘시와산문’ 시 부문 신인상을 등단했으며 시집 ‘반듯한 슬픔’과 동화집 ‘천년대숲이야기’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역특성문화예술교육 3개 단체 참여자 모집

‘별별이야기’, ‘함께 쓰는 작정일기’, ‘풍류사운드 가야금’

동네문화, 제로웨이스트, 가야금과 국악놀이 등 서로 다른 주제를 매개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돼 눈길을 끈다.

펀스토리는 ‘별별동구 사람들愛 별별이야기’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놀이 등을 토대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10월 25일까지(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동네탐방, 추억의 부침개 파티, 나만의 책과 노래 등이 진행된다. 문의 010-5683-8412.

문화예술교육을 매개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예술단체 마리모의 ‘함께 쓰는 작정일기’. 20대에서 40대까지 1인가구를 대상으로 글쓰기, 가구 리폼하기 등의 예술활동이 펼쳐진다.

프로그램은 총 2기로 운영되며 1기는 오는 6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서구 발산마을 일원에서 진행한다. 각 기수 당 20명을 모집하며 27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신청서(https://forms.gle/ChMq99NnT4mNpvYL8)를 제출하면 된다.

루트머지가 운영하는 ‘풍류사운드 가야금’은 문화공간이 부족한 중장년층을 위한 가야금 교육과 국악 예술놀이 프로그램이다. 선착순 20명을 오는 6월 4일까지 모집한다. 문의 062-444-076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크로스오버밴드 ‘화양연화’

국악에 더해진 클래식과 재즈

퓨전국악밴드 ‘화양연화’ 공연, 6월7일 북구문화센터

“행복을 노래하는 ‘맛있는 소리’”

퓨전국악밴드 ‘화양연화’가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광주북구문화센터 무대에 오른다.

재즈피아니스트 강윤숙을 주축으로 7명의 멤버로 구성된 ‘화양연화’는 판소리와 장구, 가야금, 생황, 대금, 비올라, 피아노, 콘트라베이스, 드럼 등 국악과 클래식, 재즈 분야를 아우르는 여성 연주자들의 크로스오버밴드다.

이날 공연은 리드미컬한 라틴 리듬으로 풀어낸 ‘꿈을 향해 달리다’를 시작으로 어쿠스틱한 악기들의 선율로 새싹이 돋는 봄날을 노래하는 ‘어느 날’,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은 ‘아름다운 나라’ 연주가 이어진다.

이어 클라리넷 박효인과 기타리스트 김수곤, 반도네온 김국주가 특별출연해 ‘Vigor’, ‘My heart is racing’을 들려준다.

또 ‘꽃날’, 프로젝트 락의 곡으로 유명한 ‘난감하네’, 화양연화의 대표 창작곡 ‘효녀심청이’, 아리랑을 퓨전재즈로 재해석한 ‘아리랑 퓨전’, 동요 ‘산토끼’를 재해석한 ‘토끼 아니오’ 무대로 꾸며진다. 이번 공연에는 대금 이승호, 드럼 윤영훈 등도 객원멤버로 참여해 무대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

피아노 강윤숙, 판소리 이은비, 가야금 김보람, 비올라 정선희, 베이스 한수정 등으로 구성된 화양연화는 지난 2020년 임방울국악제 퓨전국악 부문 경연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국악을 현대인의 감성에 맞게 편곡,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전석 무료. 문의 062-410-8367.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디 에센셜 한강’ 소설·시·산문을 한권에

한강 작가, 작품 엮은 책 출간

한강 작가가 30년 가까이 집필한 작품 중 소설과 시, 산문을 한 권에 엮은 책 ‘디 에센셜 한강’이 나왔다.

교보문고와 문학동네가 공동 기획 시리즈 ‘디 에센셜’(The essential)의 첫 한국 작가로 한강을 선정해 핵심 작품을 큐레이팅했다. 한국작가편은 ‘센세이션’이란 키워드로 한국문학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가를 조망한다.

2016년 ‘채식주의자’로 한국인 작가 최초 영국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받는 등 센세이션의 상징이 된 한강은 1993년 등단해 소설과 시, 산문집, 어른을 위한 동화 등을 펴내며 삶에서 제기되는 물음을 살펴왔다.

수록작들은 ‘상실의 고통을 안고 사는 이들이 마주한 한줄기 빛’이란 한강 소설의 미학이 응축된 작품들이라고 문학동네는 소개했다.

‘희랍어 시간’은 한강이 2011년 발표한 다섯 번째 장편으로, 말을 잃어가는 여자와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의 만남을 그렸다. 소멸하는 삶 속에서 서로를 단 한 순간 마주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단편 ‘회복하는 인간’과 ‘파란 돌’은 ‘인간이 어떻게 회복되는 존재일까’란 질문에 대한 작가의 사유가 담겼다.

이밖에 2013년 첫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에 실린 시 다섯 편, 1980년 광주의 기억과 ‘소년이 온다’를 집필하던 시기 일화가 담긴 ‘여름의 소년들에게’, 노르웨이 ‘미래도서관’ 프로젝트에 참여한 소감을 쓴 ‘백 년 동안의 기도’ 등 산문 8편이 함께 수록됐다.

한강은 작가의 말에서 이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하게 된 결심을 약속처럼 적어본다며 “어머니에 대해 제대로 쓴 한 권의 책을 따로 쓰겠다. 십 년 전에 앞머리를 써두었던 ‘파란 돌’의 꿈에 대한 독립적인 책도 더 늦게 전에 쓸 거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시민 아이디어 공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지원포럼)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조성사업) 관련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6월 24일까지 진행된다.

광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조성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지원포럼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관련 아이디어나 실행방안에 대해해 간략하게 서술해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상 70만원(1명), 우수상 50만원(2명), 장려상 20만원씩(5명)의 상금이 수여되며, 결과는 6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개인에게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지원포럼(062-611-2043)에 문의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